

해양치유 1번지 완도에서 12일 전국 맨발 걷기 축제 열린다!

‘완도 해양치유의 날’ 선포, 다채로운 해양치유 체험 진행

완도군은 7월 12일 오후 5시 신지 명사십리에서 「2025 해양치유 완도 전국 맨발 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군은 자연 속 치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완도의 해양치유 자원 및 맨발 걷기를 결합하여 치유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축제를 마련했다.

축제는 「완도, 치유의 파도길을 걷다! 바다를 품다!」를 슬로건으로 ‘해양치유 완도 맨발 걷기 대회’와 ‘완도 해양치유의 날’ 지정 선포식, 다채로운 해양치유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한다. 맨발 걷기 대회 참가자는 지난 6월 17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받았으며, 당일 현장(명사십리 제1주차장)에서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부

는 가운데 걷기 동호인, 관광객, 주민 등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 당일 오전 10시부터 해변 필라테스와 엑서사이즈, 머드 팩, 꽃차 시음 등 완도 해양치유를 할 수 있는 체험 존을 운영하며, 맨발 걷기 효능 및 기본 동작 설명 등 전국맨발걷기운동본부의 박동창 회장의 강연이 진행된다.

식전 행사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모래해변(3km)과 황톳길(1.2km)을 맨발로 걸으며 건강한 에너지를 채우고, 완보한 참가자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대회가 끝난 후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이날 7월 6일을 ‘완도 해양치유의 날’로 지정하는 선포식도 갖는다.

해양치유산업업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3년 11월에는 국내 최초로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개관했으며, 해양치유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치유의 날’을 지정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치유’와 ‘발음’이 비슷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7(치), 6(육)이 최종 선정되어 지난 2월, 조례를 통해 7월 6일을 ‘완도 해양치유의 날’로 지정했다.

군은 전국 규모의 맨발 걷기 대회와 ‘완도 해양치유의 날’ 선포식을 통해 ‘해양치유 1번지 완도’를 널리 알리고 관광 및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신지 명사십리는 맨발로 걷기 좋은 고운 모래길과 공기 비타닌



인 산소 음이온이 도시의 최대 50배나 많을 정도로 청정한 곳이다”면서 “걷고, 치유하기에 최적지인 완도로 오셔서 힐링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제1회 곡성군 아름다운 경관상 공모’ 마감 임박 주민이 직접 가꾼 아름다운 경관 자랑할 기회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추진 중인 ‘제1회 곡성군 아름다운 경관상 공모’가 오는 7월 11일 마감 앞두고 있다.

이번 공모는 군민의 일상 공간에 깃든 소중한 아름다움을 발굴하고 자발적인 경관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부문은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민간정원 2개 부문이며 간단한 신청서와 사진 자료만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대상에는 상금 150만 원과 ‘아름다운 경관상’ 현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은 상금 100만 원, 참가상 등도 부분별로 마련되어 있다. 이번 공모는 주민들이 애써 가꾸 온 공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여러분이 평소 관리해 온 생활 경관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모”라며 “제1회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곡성군은 아름다운 경관상을 단순한 시상이 아니라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의 경관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동력으로 삼을 방침임을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 참여형 경관 발굴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곡성다움이 살아있는 품격 있는 공간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곡성/이경수 기자

담양군은 ‘2026년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 공모를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은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가꾸는 생활권 숲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에 동시에 꾀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숲 속의 전남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공모 대상은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비영리단체 등으로, 국공유지 또는 마을소

담양군, ‘2026년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 공모 접수 주민 주도 마을숲 만들기... 1곳당 최대 5억 원 지원

유지 등 공공성을 갖춘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소유 토지도 5년 이상 사용 승낙이 가능하다면 대상지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유형은 습터숲형, 풍치숲형, 소득숲, 기타 특화숲 조성

뿐 아니라, 기존 참여숲의 정비와 보완 사업도 가능하다. 대상지별 최대 5억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사업비에는 숲 조성뿐 아니라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편의시설 설치 등도 포함된다.

군은 오는 7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자체 심사를 거쳐 전라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도 현장심사, 8월 말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숲, 골목숲 등 지역에 어울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관심 있는 주민과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진도군, 집중호우와 폭염 대비해 시설 등 현장 점검

진도군은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호우와 폭염 취약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지성 호우에 의해 취약지역의 도로와 주택가의 침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침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배수구와 빗물받이 2,970개소 등 배수 체계를 점검하고 토사 유실과 낙석이 우려되는 급경사지 105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군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대비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 관내 무더위쉼터 297곳의 냉방시설을 점검하고 운영시간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또한 냉방장치와 생수를 비치했으며, 폭염시 국민행동요령과 폭염 5대 기본 수칙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진도/오재영 기자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소식 개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4일 현경면 외반리에 건립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 정길수 전라남도의원, 정은경 무안군의회 부의장 등 군의원, 박성덕 농협중앙회 무안군지부장 등 지역 내 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의 입소를 함께 축하했다.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포함해 총 35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된 농업근로자 복지시설로,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부지 1,553㎡, 연면적 892㎡(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기숙사에는 24실의 숙소와 함께 식당, 주방, 체육실,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48명이 생활할 수 있다.

/무안군 제공



함평군, 국가공인 떡제조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 성료

전남 함평군이 군민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국가공인 떡제조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이 큰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됐다. 함평군은 7월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국가공인 떡제조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이 지난 3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교육생 20명 중 14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교육은 국가 공인 떡제조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플라워푸드교육장에서 진행했으며 군민 20명이 참여했다. 군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했으며 실기시험 대비를 위해 자격시험 실기 품목인 12종 떡을 중심으로 실습하고, 2회의 실기 모의고사를 통해 수강생의 실전 감각을 높였다.

함평/전광훈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